

# 항쟁 도화선 부동산교 시위 중심에 학생이 있었다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

## 박해현의 새로 쓰는 광주·전남 3·1운동사

〈6〉망각의 역사에서 부활한 광주 3·1운동 주역, 송일학교 교사·학생들

양림동 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 광주 3·1운동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광주·전남 지방의 독립 만세 운동을 학생들이 주도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물인 것이다. 광주·전남의 뜨거운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3월 10일 광주 부동산교 시위 중심에 그들이 있었다. 기독교계인 송일학교·수피아여자학교를 비롯하여 광주농업학교와 보통학교 학생들도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송일학교 교사·학생들은 일반 대중들의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첫날 시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 80여 명 가운데 송일학교 교사·학생이 30명 가까이 되는 것도 항쟁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송일학교는 3·1운동 이후에도 독립만세 운동을 여러 차례 주도하다 1931년 고등과 폐과, 신사참배 거부하다 1937년 폐교된 빛나는 항일의 역사를 지녔다. 말하자면 광주·전남 3·1운동사에서 송일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일학교의 3·1운동은 역사적인 평가는 커녕 개별 사실조차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시위를 준비하고 앞장섰던 교사들에 대한 설명이 '광주시사', '독립운동사' 등 연구서마다 제각각이고, 시위로 수감된 학생들 현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수피아여자학교와는 달리 시위를 주도하다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송일학교 학생들 이야기는 누락되어 있다. 재판기록을 통해 송일학교 학생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정두범, 김성민, 김철주, 김정수 등도 출신학교를 알 수 없었다 '독립운동사'에 기술되어 있는 등 송일학교의 3·1운동사 연구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항쟁의 중심지였던 송일학교는 당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1908년 양림동에서 개교한 송일학교는 1971년 북구 운암동(한국아파트 자리), 1993년 현재의 북구 일곡동으로 이전하였다. 양림동 옛터에는 아파트(무등파크)가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 담에 송일학교 터전임을 알려주는 안내판과 표지석이 세워져 있을 따름이다. 이곳이 광주 3·1운동을 이끌었던 학교 터였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안내판 하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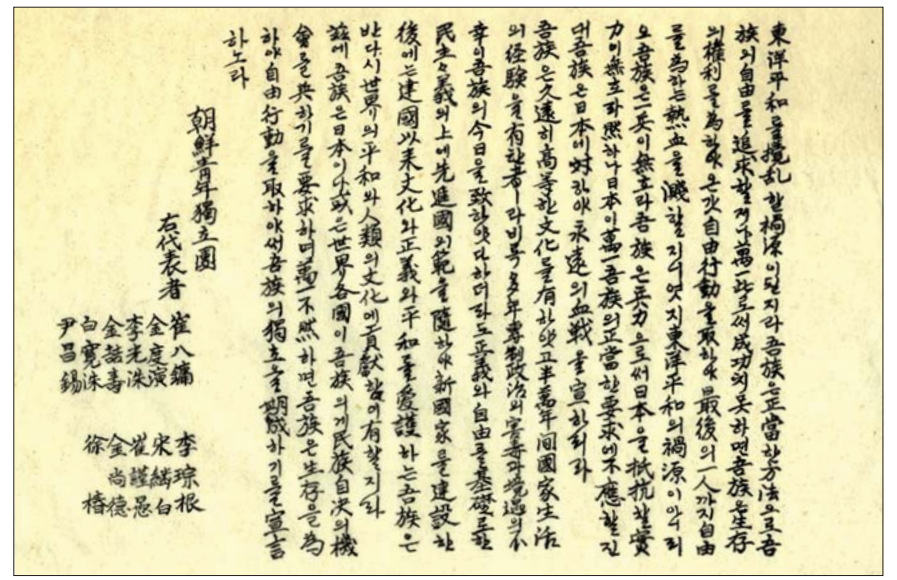
송일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도 항일 독립 운동을 차절히 전개한 선배들의 얘기는 찾기 어렵다. 학교가 화재로 기록들이 소실되고 이사를 거듭하며 과거의 기억들을 찾으려는 학교의 노력이나 당국의 무관심이 결합된 결

송일학교 교사·학생들은 일반 대중들의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첫날 시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 80여 명 가운데 송일학교 교사·학생이 30명 가까이 되는 것도 항쟁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송일학교는 3·1운동 이후에도 독립만세 운동을 여러 차례 주도하다 1931년 고등과 폐과, 신사참배 거부하다 1937년 폐교된 빛나는 항일의 역사를 지녔다. 말하자면 광주·전남 3·1운동사에서 송일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하겠다.

학교 등사기를 빼들려 유인물 인쇄가 가능케 한 손익식 선생, 조직적인 학생 동원을 통해 시민들의 항쟁의식을 폭발시킨 최병준 선생, 학생 시위 참여를 적극 독려한 강대년·신의구 선생, 선생님을 따라 독립만세 운동의 선봉에 섰던 송일학생들, 광주·전남 3·1운동을 찬란히 빛내주고 있다. 이들을 기리는 기념비 하나 없는 사실이 부끄럽게 다가온다.



남구 양림동 송일학교 개교 당시 모습.



동경유학생들이 발표한 2·8독립선언서 일부.



광주시위 기점사 재판결과 보도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문



양림동 송일학교 터(사진 왼쪽)와 송일학교 터 안내판.

과라 하겠다. 미국명에서 항쟁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서술한 박은식 선생의 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당시 재판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송일학교 3·1운동을 복원하고자 한다.

3월 10일 시위의 중심에는 김복현(異名, 김철)이 있었다. 최흥중과 3월 1일 서울 시위에 참여한 김복현은 최흥중이 서울에서 체포되자 혼자 독립선언서, 포고문, 독립가 등 3종 유인물을 품에 숨기고 옥 송일학교 선생을 지낸 양림교회 남궁혁 목사 집에서 구체적인 시위 계획을 세웠다. 송일학교 교사 최병준과 손익식, 보통학교 교사 김대열 및 일반인인 김강, 송흥진, 최정주, 한길상, 강석봉, 김용규 등이 주 참석 멤버였다.

최한영 집에서 인쇄한 시위에 필요한 독립선언서, 포고문, 독립가 등 수천 장 유인물은 최정주가 소유한 등사기와 송일학교에서 교사 손익식이 가져온 등사기를 이용한 것이었다. 송흥진이 학교 등사기를 이용하자고 제의하여 손익식이 가져왔다. 송흥진이 등사기를 가지러 손익식과 함께 학교를 갔기 때문에 송일학교 교사라고 오인한 연구도 있다. 인쇄용지 1만여 장은 강석봉이 한길상과 함께 당시 돈 30원으로 구입하였다. 손익식 선생이 인쇄기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8천명 넘게 참여한 3월 10일 시위에 필요한 유인물 제작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누구보다 손교사의 공이 크다 하겠다. 손익식 선생은

지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동료인 손익식 교사를 모임을 소개하는 등 김복현과 함께 시위 준비의 중요 역할을 담당 한 송일학교 최병준 교사는 김강 등과 독립선언서 1천장을 학교로 가지고 가서 보통과·고등과 학년 대표인 정두범, 김성민, 김철주 등을 시켜 학생 1인당 20매씩 할당시켰다. 최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선언서, 포고문, 독립가, 태극기 등을 동문, 남문, 서문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세를 선포하는 등 학생·시민들의 시위를 이끌었다. 참가 인원 8천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최교사는 시위 주동자 가운데 김복현 등과 함께 징역 3년 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 최교사와 함께 유인물을 학교에 가져간 김강을 일부에서는 송일학교 교사로 설명하기도 하나 사실이 아니다. 인쇄용지를 구입한 강석봉 역시 송일학교 교사라는 주장도 있으나 '피고인(被疑人)'이라는 판결문 내용으로 볼 때 교사는 아니다.

한편 최병준·손익식 선생처럼 시위 준비 단계부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시위 당일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다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송일학교 강대년·신의구 교사 있다. "학생들의 '망동'을 막지 않고 오히려 참가를 권유하였다"라는 이들의 판결문 내용에서 당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송일학교 교사로서, 손두 선생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당시 4명의 교사가

3·1운동 시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스승들의 헌신적 참여는 송일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3월 10일 대성공을 거둔 광주 시위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시위대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선포하는 등 군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던 송일학생들의 강렬한 투쟁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날 시위로 징역형 이상을 받은 송일학교 학생들은, 학생 대표인 정두범·김철주·김성민·김정수를 비롯하여 이병환·김관철·장남규·김영기·주형욱·김석현·이창호·원창권·주장안·황맹석·이남채·김장수·양만석·정몽석·홍금표·김학선·박오기·김상원·유계문·조흥중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징역 10월부터 징역 4월까지 선고 받았다.

그런데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송광춘이 있었다. 그의 판결문에는 직업을 농업으로 밝히고 있어 송일학생으로 보는데 약간 혼란스럽다. 그러나 송광춘 이름이 정두범, 김철주 등 송일학교 학생 바로 앞에 있고, 송일학교 특별과 학생이라는 다른 증언이 있음을 고려할 때 송일학교 학생이거나 직전 졸업생일 가능성도 있다. 그가 대구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고문으로 숨졌다고 송일중·고등학교 홈페이지 등에 언급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명단에는 이름이 없어 어렵게 보훈처에 알아본 결과 이번 3월 1일에 공

적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한편, 판결문을 보면 '농업학교'라고 송일학교를 지칭하고 있으나, 송일학교와 수피아여자학교 시위 학생들은 '양림리'라고 하였을 뿐 학교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 학교의 시위 가담 학생들의 출신 학교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재학생 대부분이 시위에 참여한 두 학교의 무서운 항일의식의 전파를 두려워한 것이라 생각된다. 판결문에 두 학교 학생들의 출신 학교가 없다 보니 이들 학교 출신들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한 요인이 되었다고 믿어진다. 수피아여자학교의 경우는 후배들의 노력으로 기념탑까지 세워지는 등 역사에서 기억되고 있지만 송일학교는 일제 강점기 폐교와 화재로 인한 학교 기록 소실, 잦은 이사 등으로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것이다.

학교 등사기를 빼들려 유인물 인쇄가 가능케 한 손익식 선생, 조직적인 학생 동원을 통해 시민들의 항쟁의식을 폭발시킨 최병준 선생, 학생 시위 참여를 적극 독려한 강대년·신의구 선생, 선생님을 따라 독립만세 운동의 선봉에 섰던 송일학생들, 광주·전남 3·1운동을 찬란히 빛내주고 있다. 이들을 기리는 기념비 하나 없는 사실이 부끄럽게 다가온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늦었지만 후세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독립 정신을 담은 조형물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학박사 동산대 기초교양대 강사

**광주 CBS**

**광주 CBS 음악FM**

**2019. 1. 9 개국**

**한동준의 <FM팝스>**  
14:00~16:0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6:00~18:00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18:00~20:00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0:00~22:00

Less Talk More Music

**최고의 음악채널**

**광주 CBS 음악FM**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09:00~11:00

**서수현의 <매일 주와 함께>**  
11:00~12:00

**FM 98.1 MHz**

■ 대구CBS FM 103.1 / 안동 FM 92.3 / 음악FM 97.1 ■ 부산CBS FM 102.9 / 음악FM 102.1 / 서부산 음악FM 105.3 ■ 광주CBS FM 103.1 / 음악FM 98.1 ■ 전북CBS FM 103.7 / 남원 FM 90.7 / 고창 FM 96.3 ■ 강원CBS FM 93.7 / 홍천 FM 93.7 / 원주 FM 94.9 ■ 대전CBS FM 91.7 / 홍성 FM 99.3 ■ 울산CBS FM 100.3 ■ 포항CBS FM 91.5 ■ 경남CBS FM 106.9 / 진주 FM 94.1 ■ 제주CBS FM 93.3 / 서귀포 FM 90.9 / 어음 FM 90.9 ■ 강원영동CBS FM 91.5 ■ 전남CBS FM 102.1 / 순천 FM 89.5 ■ 청주CBS FM 91.5